

# '코로나 시대 관광' 자연·생태자원 풍부한 전남

## 전남 '쾌적·한적'한 자원 최대 강점

### "생태관광센터 설립...지속 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코로나19 시대'에 전남의 풍부한 자연·상대 관광자원이 전남지역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최대 강점으로 분석됐다.

다만,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숙박시설이 열세한 것은 물론, 특정지역에 편중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전남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박지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과장·김지는 조사역, 고아라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과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전남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에

따르면 전남의 자연·생태관광자원은 코로나19 이후 쾌적하고 한적한 자연을 선호하는 관광객수를 충족시켜 전남지역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최대 강점 요인이다.

최근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자연의 모습을 잘 보존해온 전남의 자연·생태 관광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인 국민여행조사결과도 과를 같이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인 국민여행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 한적하고 쾌적한 자연 등으로의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시 주된 활동으로 '자연 및 풍경 감상'(2019년 74.4%→2020년 78.1%→2021년 81.3%)을 즐기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휴식·휴양' 및 '음식관광'에 비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 및 생태 관광자원이 많고 면적으로도 자연·생태 관광지의 관광수용력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

(2014개, 전국의 59.6%), 가장 긴 해안선(6,873km, 45.0%), 가장 넓은 연안습지(1,054km<sup>2</sup>, 42.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수(58개, 20.9%)도 강원(94개, 33.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또 자연공원(2898km<sup>2</sup>), 자연휴양림(32km<sup>2</sup>), 자연명승지(46km<sup>2</sup>) 등 자연·생태 관광자원의 면적(2977km<sup>2</sup>)이 강원(5612km<sup>2</sup>), 경북(4601km<sup>2</sup>)에 이어 세 번째로 넓어 관광수용력도 높은 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조사한 관광여행 만족도 조사 중 전남지역은 '관광지 혼잡도' 항목에서 82.8점(전국 평균 76.3점)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배 기자

## 전남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

### 올겨울 세 번째...독거노인·복지시설 등 264억원 지원

전남도가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 가운데 세 번째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난방비 264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은 경제위기·가뭄 등으로 어려운 도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민생대책 시책이다.

홀로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5만 5600가구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구당 20만원씩 총 111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9212곳에도 난방비 148억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마련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에서 지원하는 국가 지원시설 외에 전남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해 도내 시설 879곳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시설 중 정원 50명 이하 30만 원, 51~100명은 50만원, 100초과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용시설 지원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30만원이다.

/박종배 기자

## 태국 조선·농어업 근로자 도입방안 강구

### 김영록 지사, 태국 노동부장관과 일자리 협력 강화키로

김영록 지사가 태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전남지역 산업 현장에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공급 방안을 강구했다.

전남도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날 오후 방콕에서, 수컷 총틀린 노동부 장관을 만나 전남도와 태국 정부 간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농어업 근로자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의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 치중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를 태국 등 동남아로 다양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의 건의로 최근 정부가 제도 개선한 연간 조선업 기능 인력을 2000명에서 5000

명 확대·별도 쿼터 신설 400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대기 중인 비자 신속 처리', '지역특화 비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등 조선업 1200여개를 포함해 농어업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에 일자리가 있고, 특히 조선업은 2025년까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태국 정부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수컷 총틀린 노동부 장관은 "태국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일할 기술을 가진 근로자뿐 아니라 제조업·농업 분야 인력이 많고, 준비된 지역이 조선 기능인력, 제조업 인력이 많은 지역"이라며 "전남도와 준비된 우호협력관계를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사업별 최대 1천만원

전남도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지원, 여성 역량강화·사회참여확대 등 3개 분야로 2개 이상 시·군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에 한해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사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00만원이다.

전남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일반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2개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 대표 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고유번호증이 있는 일반단체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최종 선정은 기금사용 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해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김 호 기자

## 광주시민 68.3%

###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

광주시민 10명 중 7명 가량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8명 이상은 해제되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시민 정책 참여단 2만4329명을 대상으로 시민 소통 플랫폼 '광주 온(on)'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시민 의식과 앞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다' 40.3%(1253명), '매우 찬성한다' 28.0%(870명)로, 68.3%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편이다'와 '매우 반대한다'는 각각 21.2%(659명)와 7.5%(234명)로 합쳐서 28.7%에 그쳤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81.7%가 '당분간은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4.1%(1370명)는 '되도록 착용하겠다'고 했고, 14.8%(460명)는 '무조건 착용하겠다' '당장 착용하지 않겠다'는 시민도 18.3%(569명)에 달했다.



강기정 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월요대화에 참석해 청소년 활동지원 및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강기정 시장 "청소년 중심 자유평간 정책 등 필요"

### 15번째 월요대화, 청소년 자유평간 등 아이디어 쏟아져

"갈 곳 없고, 놀 것 없어 직접 우리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더 많은 청소년 자유평간이 필요해요. 어른들이 도와주세요!"

광주 광산구 비아마을 청소년 봉사 동아리 김주형군(송덕고)은 16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15번째 월요대화에서 청소년 자유평간 '비아작당'을 만든 경험을 소개하며 "어른들의 관심, 예산지원 등 실질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군은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마을 정자에서 불안하게 노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 공간을 만들기 결심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을 한 이지우군(송덕고)도 "어른 시선에서 보면 청소년공간이 일탈의 장소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청소년에게 휴식·체험의 공간이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대

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이 중심되는 자유평간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인력·예산 지원 등 지자체의 관심과 청소년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 수립, 시청 개방과 공무원과 함께하는 진로체험장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구연 서울 중랑구 당가동2번지 센터장은 "청소년 지원사업은 5년, 10년이 지나고나면 아이들 삶의 뿌리를 만들고, 지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부스/농막/컨테이너 맞춤형제작

안되는건 없습니다  
원하는대로 제작해드립니다

## MK하우징

설치 예정날짜와 타입만 정해서 연락주세요

타입1. 컨테이너 3X6

타입2. 컨테이너 3X9

타입3. 농막 3X6

타입4. 농막 3X9

타입5. 휴먼부스

맞춤제작

☎ 010-6265-0057

TALK